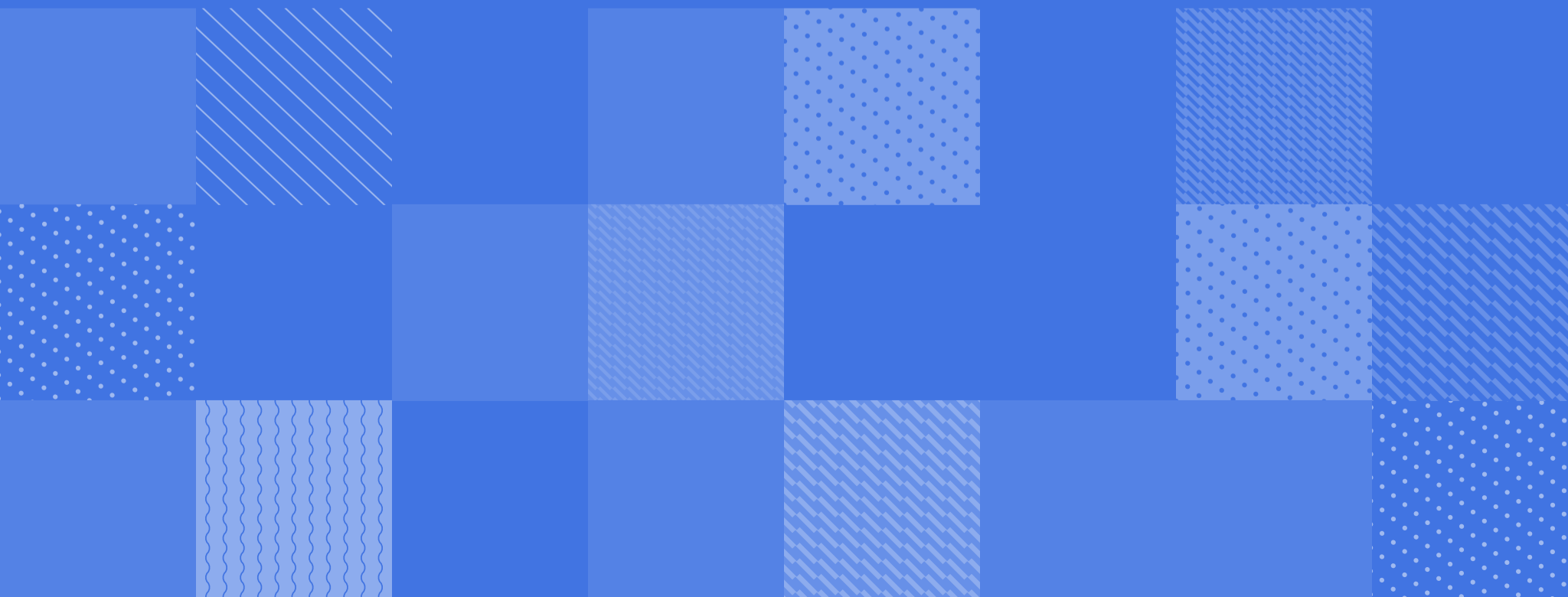




IT&LIFE

NEW NORMAL HOBBIES



뉴노멀 시대의 즐거운 문화 생활

비대면 시대에 취미 · 문화 생활은 어떻게?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동네 헬스클럽도 가기 힘들고 동네 수영장도 몇 달째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갇혀 사는 바람에 살은 찌고 어딜 나가서 무얼 하려고 해도 일단 얼굴을 마주보며 할 수 있는 취미와 문화 생활은 겁부터 난다. 이럴 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낯설고 생소하지만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취미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앱과 사이트를 소개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더라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걸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기존의 대면 서비스업은 지고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업이 뜬다는 얘기일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가장 대표적이다.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19 이후 대면접촉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주문으로 월 거래액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회사와 집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폭발적인 급증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재택근무제는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대규모 컨퍼런스나 전시회 등도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대체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되고 대면 과외가 점차 줄면서 스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언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취미나 문화생활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에게 유행을 끌었던 대면 접촉 위주의 축구나 야구 동호회나 사이클, 헬스 동호회 등도 온라인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로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떠오르는 언택트 취미생활은 무엇이 있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앱과 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 이 앱과 사이트들은 급격한 비대면 전환으로 인해 기존 앱들과 달리 무료보다는 비용을 내고 보다 전문성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에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앱

리트니스: 온라인 라이브 홈트레이닝 서비스이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트레이너에게 직접 관리 받는 라이브 피트니스앱으로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다노: 온라인 다이어트 코칭 프로그램으로, 전문 코치의 개인 맞춤형 식단 제시에서부터 집에서 쉽게 따라하는 짧고 효과적인 운동 영상 등을 제공한다.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운드짐: 영상보다는 오디오 중심의 피트니스 앱이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보다 오디오로 가이드를 받을 때 집중력이 더 향상된다는 게 이 앱의 설명이다. 회당 월 1만원 이하로 PT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앱

스터디파이: 취미 겸 다양한 공부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앱이다. 웹툰 그리기에서부터 글쓰기, 이메일 마케팅하는 법, 원어민 비즈니스 영어 배우기, 해외구매 대행 배워 용돈 벌기 등 다양하다. 동영상 강의는 10만원대부터 다양하다.

클래스101: 크리에이티브 과정, 커리어 과정, 시그니처 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 준비물까지 챙겨준다. 취미에서부터 모션그래픽, 주식투자 재테크법 등의 스킬을 배울 수 있다.

온라인 취미 플랫폼

마이비스킷: 온라인 취미 클래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마이비스킷은 미술, 공예, 그래픽 디자인쪽에 특화되어 있다. 직장인의 저녁을 디자인한다는 모토를 삼을 정도로 저녁 시간에 취미를 배울 수 있는 앱이다. 캘리드로잉, 디지털디자인, 사진영상, 비누캔들향수, 자수공예 등이 있다.

하비풀: 취미 생활을 도와주는 배달 서비스 앱이다. 프랑스 자수, 수채화 등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알려준다. 입문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지속해서 취미를 이어갈 수 있는 정규 클래스가 있다.

집에서 명상 도와주는 앱

마보: 마보는 마음보기연습의 약자로, 마음챙김 명상 앱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정신훈련의 일환으로 운동을 하듯 마음의 습관을 기르는 게 목적이다. 이 앱을 사용하면 7일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이후는 유료인데 한달에 4천원 정도이다.

마인딩: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온라인 마음관리 앱이다. 하루 20분 온라인으로 마음관리를 받으면서 심리 치유와 성장을 도와주는 전문 트레이너가 피드백을 전달해준다. 비용은 월 13만원 정도이다.

강연과 공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연과 온라인 공연도 풍성하다.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강연과 공연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에서도 랜선 버스킹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오프라인 관객들 대신에 온라인으로 참여, 가상 공간에서 합창 공연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사 위기에 몰려 있던 대학로 연극 공연들도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안방에서 볼 수 있

게 됐다. 모니터나 멀티 디스플레이를 통해 온라인 관객으로 참여하고 화상으로 대화와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취미, 문화 관련 사이트

사운드클라우드(<http://soundcloud.com>): 전세계 뮤지션들의 음원 감상, 공유하는 사이트

IZM(<http://www.izm.co.kr>): 국내외 앨범 발매 정보, 리뷰, 공연정보 등

뮤직커버리(<http://musicoverly.com>): 내 기분 상태에 따라 음악 감상

TED(<http://www.ted.com>): 해외 유명인사 강의

부슈우(<http://www.busuu.com>):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아랍어 등 세계 각국 언어 학습

KOCW(<http://www.kocw.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국내 대학의 무료 강의 검색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문구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비대면 활동을 확대한다면, 이에 적합한 취미와 문화 생활을 즐기며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